

우 리나라 건설산업은 6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70년대에는 자본집약적, 80년대에는 기술·기능집약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기술·지식집약적인 시대로 급진전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이라는 큰 파도까지 목전에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제도의 개선”, “입찰관행의 붕괴”, “기술개발” 등이 건설업체의 자기반성과 체질개선을 요구하며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연구개발업무를 새로이 맡은 중역의 입장에서 평소의 소신 몇가지를 피력하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의 대비

우수연구인력의 확보와 조직의 개편

96년을 21세기를 준비하는 연구개발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인력확보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술연구소를 기획팀, 건축 1팀(건축구조), 건축 2팀(건축 설비, 공항, IBS), 토목팀(지하공간, 환경, 자동화)의 4개팀으로 조직하고 각팀의 팀장으로 박사급 연구원 4명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특화사업분야인 지하공간개발, 환경분야, IBS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반조성을 할 예정이다.

이미 2001년까지의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이 끝나는 2001년에는 독립연구소로 도약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업무의 필수시설인 실험동의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현장실무에 바탕을 둔 연구개발의 정착

현장에 바탕을 두지 않거나 엔지니어들의 현장감각을 무시한 연구개발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철저하게 현장에 기초한 연구성과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

현장감각을 키우기 위하여 연구원들의 현장체험을 적극 권장하고 나아가서 직급별로 연간 일정기간 이상을 현장에서의 연구를 제도화하는 계획을 준비중이다.

그룹 계열사 연구소와의 업무연계 강화

그룹 계열사간의 유대를 강화한 공동연구추진이나 상호협조에 의한 연구효과의 시너



신관섭 연구개발 담당 이사

지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 쌍용양회 중앙연구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세라믹 등 신소재 분야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고강도 콘크리트나 기타 특수 콘크리트의 실용화 연구, RC건축물의 초고층화 연구 등은 타사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또한 PQ입찰에 대비하여 시설과 연구성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외활동의 강화

당사의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외 연구기관과의 유대강화와 각종 학술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학부설연구기관과의 산학공동연구를 확대 시행하고 건교부 지원 연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경쟁업체 연구소와도 공동이익을 찾는 방안, 즉 신규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든지, 공동연구 추진으로 중복투자를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관 각종 학회나 학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자세의 확립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두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에 임하는 연구원들의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인 자세가 더욱 중요함은 물론이다.

우리 연구원들은 신세대라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대부분으로 어릴 때부터 4지선다형의 주입식 입시교육에 길들여져 창의력을 발휘하는 면과 수많은 실패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연구개발에서 난관을 극복하는 투지면이 다소 결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책상위에 쌓여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볼 때 현장검증없이 연구보고서에 인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좋은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가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대안제시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회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건설회사의 인력관리 시스템은 대다수의 중급기술자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급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고급 첨단 기술과의 경쟁시대가 오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회사는 만리장성 프로젝트에 상당한 기간동안 사내외의 온갖 지혜를 모았다. 이 프로젝트가 당사의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S**

현장에 바탕을 두지 않거나 엔지니어들의 현장 감각을 무시한 연구개발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철저하게 현장에 기초한 연구성과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